

NEWS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몽골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2007. 12. 3~7)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의료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몽골 어린이 두 명이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의 도움으로 한국에 와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7일 돌아갔다.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종을 앓는 바트칸(8)과 선천성 청각 장애를 갖고 있던 아나르(5)는 지난 3일 입국해 서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등에서 수술 전 검사와 1차 치료를 받고 밝은 표정과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았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2007년 9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북서쪽에 있는 자갈란트(Zagalant) 마을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갔다 이들을 만났다. 3살 때 음경 귀두 부분에 혈관종이 생긴 바트칸을 치료하기 위해 몽골 국립아동병원과 암센터 등을 찾아다니던 부모들은 현지 수준으로는 고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나르의 부모도 마찬가지. 가톨릭의료협회는 몽골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두 어린이를 어떻게든 치료해 주기 위해 한국에 초청했다. 바트칸은 다행히 비뇨기과 검사에는 이상이 없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보다 정밀한 수술을 위해 미세 레이저 치료를 갖춘 '강남CNP 차안박 피부과' 심재홍 원장의 집도로, 무료로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아나르는 왼쪽 귀만 조금 들을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인공 와우수술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공 와우수술은 장기적 언어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몽골 현지에서 언어 재활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서울 대교구 원로 사목자 최익철 신부가 제공한 침단 보청기를 착용하게 했다. 바트칸의 어머니 나란차차(32) 씨는 "멀리 떨어진 몽골의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아끼지 않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의료진과 관계자들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가톨릭의료협회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두 어린이를 다시 초청해 후속 치료를 해주었다.



이끼리 앓고 있을 때... 바트칸의 어머니 나란차차 씨의 감사 편지. "바트칸은 다행히 비뇨기과 검사에는 이상이 없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보다 정밀한 수술을 위해 미세 레이저 치료를 갖춘 '강남CNP 차안박 피부과' 심재홍 원장의 집도로, 무료로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아나르는 왼쪽 귀만 조금 들을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인공 와우수술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공 와우수술은 장기적 언어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몽골 현지에서 언어 재활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서울 대교구 원로 사목자 최익철 신부가 제공한 침단 보청기를 착용하게 했다. 바트칸의 어머니 나란차차(32) 씨는 '멀리 떨어진 몽골의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아끼지 않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의료진과 관계자들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가톨릭의료협회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두 어린이를 다시 초청해 후속 치료를 해주었다."

일본 성 마리아 병원 - 강남성모병원 교류 안 논의(2007. 12. 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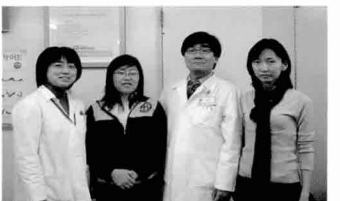
일본 성 마리아 병원 관계자들이 12월 13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을 방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양국 간의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이데 요시오 성 마리아 병원 이사장을 비롯해 응급의료센터장 시마 히로지 교수 등 일행 6명은 강남성모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벤치마킹하고, 한일 간 의료 기술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방문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의과대학 연구원에서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을 둘러봤다. 일본 큐슈지방 유미 시에 자리한 성 마리아 병원은 일본가톨릭병원협회를 대표해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교류를 이어왔다.



몽골의 의사 초청, 보완의학 치료법 단기과정 실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가정의학교실 보완의학센터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후원으로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12일간 몽골의 내과 의사인 Dr. Delgermaa Sukhbaatar(델게르마 스 후바타르, 여)를 초청해 보완의학 치료법 단기 과정을 실시하였다.

Dr. Sukhbaatar는 2006년 몽고 울란바토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몽골의 자갈란트 보건소에서 근무를 지원한 의사로, 지난 2년 동안 가톨릭의료협회 해외 의료선교 사업으로 진행되



NEWS

었던 자갈란트 보건소 진료에 참여했었다. Dr. Sukhbaatar는 2주간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진(최환석, 옥선명, 송찬희, 주상연 교수)에게 일대일로 집중 교육을 받았다. 근자요법, 스포츠의학, 스트레칭, 카이로프랙틱, 보완대체의학 개론, 행동의학, 이완요법 등의 보완의학 전반에 걸친 과목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인천대학교 최화섭 교수의 집에 머무르면서 한국의 가정생활을 체험하였고, 휴일에는 최 교수 부부의 안내로 서울시 관광을 하기도 했다. 시간상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있을 해외의료선교단의 새로운 진료지에 합류해서 보충하기로 하였다.



해외의료선교단 새 임원 임명장 수여식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해외의료선교단 새 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을 2008년 1월 23일 오후 5시 30분에 의과학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단장에는 김영훈 교수(성모병원 내과), 부단장 4명은 최환석 교수(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채혁 교수(백병원 신경외과), 원사덕 교수(나노팜 제약), 김남초 교수(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가 임명되었으며 최정진 지도신부와 박영혜 수녀가 간사로 일하게 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단 제1차 회의는 1월 30일 '농촌'에서, 2차 회의는 2월 19일 의과학연구원 1026호에서 있었다.



이호열 신부(살레시오회), 가톨릭의료협회 도움으로 몽골 두 어린이 무료 치료(2월 2일~)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호열(살레시오회) 신부로부터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 강남성모병원과 연결하여 주었다.

화상으로 왼쪽 손가락 두 개가 붙어 버린 간철루멍(10)군과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이질체체크(8)양. 이질체체크는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심장병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뜻밖에도 복부 대동맥류가 심각했고 한쪽 신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 중이염에 걸려 왼쪽 귀 고막을 상실했고 오른쪽 귀도 염증이 심해 그대로 방치하면 청력을 완전히 잃을 것으로 보였다. 왼쪽 서해부(사타구니)에서는 종양이 뭉쳐진 종괴(腫塊)도 발견됐다. 치료를 맡은 강남성모병원은 복합 질환을 앓고 있는 이질체체크의 건강을 최대한 되찾아 주기 위해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치료에 힘을 쏟고 있다.

정밀 검사 결과 간철루멍은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 14일 강남성모병원 성형외과 안상태 교수 집도로 붙어 있던 손가락 피부를 떼어 내는 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

간철루멍은 두 살 때 엄마가 한눈을 파는 사이 뜨거운 국물 냄비에 손을 넣었다 심한 화상을 입어 왼쪽 중지와 약지 손가락 피부가 붙어 버렸다.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몽골 의료 수준이 열악한 탓에 수술을 받지 못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심장병 등을 앓고 있던 이질체체크도 마찬가지. 현지 의료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가톨릭간호사회 - 제30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회(회장 박혜자)는 2008년 2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30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피정을 '가정은 생명의 터전'이라는 주제로 심종민 임마누엘 신부님을 모시고 한다.